

2023. 4. 28.(금) 석간용
이 보도자료는 2023년 4월 28일 오전 10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: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

공원조성과장	박미애	02-2133-2050
공원구역정책팀장	유혜미	02-2133-2064
담 당 자	김봉선	02-2133-2087
과 장	송준호	042-481-4090
담당사무관	김일숙	042-481-4091

산림청 국유림경영과

쪽수 : 3쪽

서울 시민의 산림휴양·여가활동 활성화 위해 서울시-산림청 업무 협약

- 4.28(금) 10:00, 서울시청서 「산림휴양·여가 활성화를 위한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」 체결
- 국유림 무상사용을 통해 산림여가공간 조성, 정원문화 확산 및 목조건축물 확대 추진
- ‘남산 소나무숲’에 데크 산책로 등 조성하여 글로벌 산림휴양서비스 제공

- 서울특별시(시장 오세훈)와 산림청(청장 남성현)은 4. 28(금) 서울시청에서 「산림휴양·여가 활성화를 위한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(MOU)」을 체결한다고 밝혔다.
-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여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산림청의 국유림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산림휴양과 여가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여가 휴양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.
- 양 기관은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남산,

관악산, 백련산 등 도시공원에 데크 산책로, 무장애 등산로, 트리클 라이밍 등 산림 휴양·레포츠 시설을 조성하게 된다. 산림청은 국유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, 서울시는 목조건축물 확대 조성을 통해 도심 속 여가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 협력하게 된다.

< 업무협약에 따른 주요 협력내용 >

- ①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추진
- ② 도시민 산림휴양·교육·치유·여가 활성화 협력 강화
- ③ 도심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협력
- ④ 지역 내 목조건축물·목재시설물 확대
- ⑤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·관리 및 홍보 공동협력

□ 서울시와 산림청은 적극적이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원문화 확산과 더불어 국산 목재 목조건축물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.

- 서울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릴 ‘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’와 산림청에서 주최하는 ‘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’를 연계 개최하고, 도심 생활속 공간에 스마트가든과 실내·외 정원을 조성하는 등 정원인프라 확대에 공동협력한다.
- 국산목재를 활용하여 도시공원 및 등산로 주변에 자연친화적인 산림치유센터와 숲속 쉼터를 조성(’23~’26)하고, 어린이집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 국산목재를 활용하여 실내·외 인테리어 설치 등 목조건축 조성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 속 여가를 확대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매력 넘치는 공원과 정원의 도시로 함께 만들어나갈 예정이다.

참고

주요 협약내용

□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추진(3개소, 31ha)

- (남산, 17ha) 소나무숲 탐방로, 데크 산책로 등 조성
 - *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(소나무림)
- (관악산, 18ha) 야영장, 트리하우스, 트리클라이밍, 오리엔티어링 시설
 - * 서울 관악구 신림동(소나무, 잣나무 등)
- (백련산, 4ha) 무장애 등산로
 - * 서울 은평구 응암동(신갈나무)



[트리하우스]



[야영장 데크]



[무장애길탐방로]

□ 도시민 산림휴양·여가 활성화 협력 강화

- 산림휴양·교육·치유 등 산림여가 프로그램 분야 교류협력 강화
-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애 나눔길·나눔숲 조성 협력

□ 도심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협력

- '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(산림청) 연계 개최로 정원문화 확산 시너지 제고 * '24.5.~10. 뚝섬한강공원 일대 개최 예정
- 스마트가든, 생활밀착형 숲 조성 등 실내·외 정원 확대 협력

□ 지역 내 목조건축물·목재시설물 확대

-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, 다중이용시설 실내·외 국산목재 리모델링사업 확대

□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·관리 및 홍보에 관한 공동협력

- 남산 국가산림문화자산('21년 지정) 관리 및 공동캠페인 홍보 공동 협력